

광주시 ‘청년창업·미래 먹거리’ 내년 최우선 과제로

운 시장 시정연설, 100억 청년창업펀드 조성 일자리 창출

중기 육성·전통시장 활성화 등 9개 시책 중점 추진도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광주시가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청년 창업 정책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민선 6기들어 추진중인 각종 청년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해 청년이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자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전담조

직 신설과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도 나선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역점 시책 9개 분야의 올해 성과와 내년 사업 계획을 밝혔다.
9대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취업과 창업 활성화 ▲소수자와 약자 배려 ▲문화 향유 도시 조성 등이다.
또 ▲안전도시 조성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열린 공동체 조성 등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해 윤 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로 광주시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실현의 분위기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산업’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최근 전장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삼성전자와도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전 에너지밸리 기술교육원 유치와 전기연구원 및 에너지연구원 광주조직 설립, 에너지 신산업 관련 법률 제정 등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마이크로 의료로봇, 정형외과용 의료소재산업, 치과용 소재부품기술 등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청년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청년 창업 열기를 말바우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확산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관광객도 유인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드림 사업, 구직활동 청년 교통카드 지원사업 등 청년 취업정책과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으로 청년일자리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계획대로 2018년 3월 착공한다. 군 공항 이전도 시의회의 협의회에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이전부지 선정 절차,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대상지역 선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송정역~광주역 왕복셔틀차 운행 등으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도 만든다.

한편,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89억원이 줄어든 4416억원으로, 기금으로 통합관리되는 지역개발기금 1512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323억원이 증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시의회 ‘국정농단 특별법’ 전의

순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0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용 의원이 발의한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추한 사건으로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최태민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몰수해 국민의 분노를 단 1%라도 채울 수 있도록 최태민 일가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시 정부투보 송태종씨

광주시는 지난 30일 신임 정부투보에 송태종(54) 전 광주시의원을 내정했다.

송 내정자는 정당인 출신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광주시의원, 광주 북구의원(재선)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오랜 정당 활동과 의정활동 노하우·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6기 후반기 대외협력과 정부적 기능에서 송 내정자가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투보 임기는 2년이지만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송 내정자를 내달 초 정부투보에 임명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중 친환경차 석학들 광주서 기술교류

‘광주·칭화자동차포럼’ 김대중센터서 오늘 개막

광주시와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淸華大學)이 공동 주관하는 ‘광주·칭화자동차포럼’이 1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칭화대에서 강연한 후 지속적인 협력방안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칭화대학과 친환경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자동차를 주제로 자리를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포럼은 한·중 친환경차산업 현황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자동차 분야 석학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포럼은 오전 10시 개막식에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과 양피엔거 칭화대 자동차학과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김 회장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효율적인 노사 관계, 친환경차 종전인프라 확장 방안, 자율주행차 발전전략을 소개한다.

양피엔거 칭화대 자동차학과장은 ‘스마트, 제휴네트워크, 전동, 중국차공업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배경으로 중국 친환경차 정책을 소개한다.

이밖에 중국 칭화대 자동차공학과에서는 5명의 교수와 중국 북경자동차그룹 신에너지자동차의 위엔칭인 부사장, 광주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조이롱차의 어우양광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한국 측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분야 권위자인 서울대 문승일 교수, 오일근 광주그린카진흥위원장, 한양대 홍정표 교수, 박영숙 유엔 미래포럼 대표, 안병기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센터 실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 세션별로 한국과 중국의 석학, 전문가, 기업인과 패널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이틀째에는 5명의 한·중 전문가 강연에 이어 중국의 완성차그룹(조이롱차, 북경차)이 참여하는 기업간담회가 계획돼 있다. ▲조이롱차 ▲북경차 ▲수소보아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 등 5개 그룹으로 나뉜 칭화대 교수와 국내 교수·연구기관, 지역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학계와 산업계도 기술교류에 동참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창조경제센터 운영비 10억 전액 삭감 확정

도의회 예결위, 관광 예산 대폭 ↓

무안군 추진 사업 예산 삭감 많아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논란이 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비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부문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경로당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은 늘어났다

지난 30일 전남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전남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6조3735억원 중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 항목은 모두 53건이며 삭감액은 64억4000여만원이다.

예결특위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단 상임위에서 삭감한 창조경제혁신 펀드와 바이오화학 펀드 예산 20억원만은 부활시켰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상당수는 관광부와 캠페인성 사업예산인데, 대표적으로 ▲연변대 유학생 전남 팸투어(4000만원) ▲여행상품 개발 팸투어(3000만원) ▲관광대상 운영 및 지원사업(1억4000만원) ▲남도길 국제자전거레일 개조(5000만원)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지원(1000만원) ▲자유수호사업 지원(1200만원) ▲사회적경제 범도민 분위기 확산 행사(800만원) 등이다.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비와 정부투보 활동보상금도 5억8600만원과 1억4400만원 각각 줄었다. 특히 삭감 대상 중 무안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 가족분노 화충사업비(삭감액 5억원),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2600만원)는 전액 깎였다. 예산이 삭감된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5억원), 일로·삼향·정계 농공단지 개보수(1억3300만원)도 무안 읍·면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도 도비 1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같이 전제 삭감에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무안군과 관련된 예산이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로당 또는 장애인 시설 프로그램 등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은 모두 14건이며 늘어난 예산은 18억2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에서 증액된 사업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신설·6600만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2억2500만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6000만원) ▲전남 여성농아인 취미교실(3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300만원) 등이다.

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3억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6억원) ▲수산물 소포장 지원(3억원) ▲바다송어·연어 해수순환 여과식 양식기술개발(1500만원) ▲우리 밀 생산지원(1억원) ▲수산물 소포장 지원(3억원) 등 사업도 예산이 늘어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GWANGJU
City of Media Arts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여기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홀로그램 극장 광주
미디어 놀이터 광주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광주
미디어 338 광주
디지털 갤러리 광주
홀로그램 파사드 광주

**6개 빛의 공간,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7년 3월 1일 공식개관
2016년 12월 1일 인터파크 예매 시작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 조성한 미디어아트 특화 공간

문의 : 062-670-7491/7454